

사회적 억압과 극복으로서의 소통

- 울프의 「텔레웨이 부인」을 중심으로 -

박옥선, 이민영

Communication to Overcome the Social Repression in *Mrs. Dalloway*

Park, Ok-Sun, Lee · Min-Young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the English people are repressed by the social system of the 20th century in England, and further how the repression is overcome by the main characters in Virginia Woolf's novel, *Mrs. Dalloway*.

England in 1923 is ruled by the weakened ruling class in ruins at home after the world war while being collapsed abroad by the Indian and Irish independent movement. It is difficult for the ruling class to accept these situations, so it creates a new set of values, asceticism, to restrain and to standardize personal feelings. These powerful influences and ideology ignores the individual's rights. Not only Clarissa but also people in this situation have some misgivings and feel lonely, also they become isolated individuals living without communications and confidence.

On the other hand, Septimus knows social repression at first hand and he wanders in it as a psychopath. He cannot tolerate social repression, so he breaks off relations with the society. Finally he kills himself because of the solitude and the fear of his own mental collapse. In this part we can understand that the social repression is very dangerous and fatal and can drive a person to death. However, for Septimus, suicide is a way of communication with the society, and his choice is not disturbed in his own mental field.

During the party Clarissa experiences the death indirectly through her double, Septimus. She acknowledges that she also is disturbed by social repression and because of that she feels solitude, impotency, and fear of unknown thing, and she

acknowledges that an extreme solitude in social repression devastates life, so she tries to create better human relations to bring about a wealthy life. For this purpose, she gives a party as the place where good human relations can be made and she wants to recover solitude through communications with sincere mind and heart.

Woolf suggests to recover good human rela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face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social system, and chooses the party as a way to cultivate desirable relationships. Before making good relations, we have to establish our identity first. A true mind, confidence, and of course, preserving the privacy of the soul can help to create good human relationships.



I. 서론

인간이란 단순히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과의 관계만으로 살아가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일찍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를 비롯하여 세네카(Seneca), 하이데거(Heidegger), 월론(Wallon)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정의된 바 있다. 이렇듯 인간은 인간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신념들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의 권위가 커져갈수록 인간이 가지는 소원감, 상실감, 불안감, 절망감, 비인간화, 냉담, 고독감, 무력감, 무의미감등이 확대되는데 이러한 심리상태, 혹은 사회현상을 바로 소외(alienation)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외는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처럼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개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생무상, 삶의 의미, 인간소외, 인간의 원초적인 고독 내지는 의사소통 문제를 쓴 두살의 클래리서(Clarissa Dalloway)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델러웨이 부인』은 울프의 네 번째 소설로서 1925년에 출간되었고 『등대로』(To the Lighthouse)와 더불어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그의 실험 소설 가운데서도 최초로 예술적 통일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열 네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Septimus Warren Smith)의 두 인물을 축으로 하여 이들의 과거 회상과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삶에 몰두하고 싶은 욕구와 그 순간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만 셉티머스는 사회의 억압적 요소에 극단적으로 반발하다 자살하고 클래리서는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적 억압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클래리서는 사회의 억압이 한 젊은이의 영혼을 자살로 이끌 정도로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사회를 비판하며,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소외를 자살과 삶이라는 두 방향으로 해결책의 모색을 시도한다.

사실 자살은 인간에게 죽음의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며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오늘날의 한국에서 자주 다양한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20세기 초의 영국의 자살을 다룬 이 소설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 근대사회로의 진입은 인간소외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더구나 인터넷은 그러한 현상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특히 인터넷 자살 사이트가 집단 자살을 야기시키고 컴퓨터가 개인간의 소통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지만, 또한 저해하는 주범임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3년의 런던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대내적으로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대두되어 대영제국의 붕괴와 기존의 가치가 심하게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는 『델러웨이 부인』의 시간적 배경으로 대내·외적인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지배계급은 대중에게 당대의 사건이나 자신의 삶에서 도출되는 격렬한 감정에 동요되지 않도록 이런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벅스버로우 여사(Lady Bexborough), 브래드쇼 박사(Sir William Bradshaw), 또는 리처드 델러웨이(Richard Dalloway)의 시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시대의 지배계급은 국민들의 통합을 위하여 금욕적인 마음가짐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감정은 무시한 채 사회적 통합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셉티머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망각하려 할 때 유일하게 전쟁이 가져온 파괴를 잊지 않고 뒤늦게 개인적인 감정을 사회가 억압하도록 강요받은 것을 알게 되어 ‘광기’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는 사회를 상징하는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Dr. Holmes)의 처방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억압이 개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클래리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금기시되는 샬리(Sally Seaton)와의 동성애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입맞춤의 순간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이성간의 결혼으로 클래리서는 ‘Mrs. Dalloway’로 살아가며 그 틀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된다. 즉 클래리서는 사회체제로부터 극단적으로 자신을 단절하지도 않고 이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도 않는, 적어도 겉모습만은 사회와 결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델러웨이 부인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은 그녀 대신 셉티머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는 인간에게 고독이라는 문제도 안겨다 준다. 울프에게 있어서의 고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타인과의 교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고독이다. 고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인간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를 울프는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그 고독에 몰입하여 자신을 폐쇄해버리고 인간적인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러한 극단적인 고독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를 성찰하고 삶의 신비를 체험하며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울프와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은 그녀가 주장한 양성론적 페미니즘에 입각하거나 그녀의 실험주의적 글쓰기인 의식의 흐름 등에 따른 기법적 측면에 치중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들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이며, 울프 못지않은 새로운 소설기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이중론적 구조 속에서의 그 조화를 연구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으로 보고, 사회적 억압에 영향을 받는 인간 존재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델러웨이 부인』의 시대적 배경인 1923년의 상황과 사회적 억압에 따른 클래리서를 중심으로 그 외의 등장인물들의 대응방법을 살펴보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회적 억압에 따라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셉티머스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클래리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살이 아닌 파티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과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고독한 존재임이 틀림없는 인간이지만,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그 억압에 따른 고독한 존재로의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고 한다.

II. 본론

『델러웨이 부인』의 배경은 1923년으로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이다. 이 때의 영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계에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는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인도와 아일랜드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대영제국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인도에서의 상황이 급박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서 돌아온 피터(Peter Walsh)가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리처드에게 “공화당 명칭이(the conservative duffers)” (Woolf, 254)들은 인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됨에 따라 지배계급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어 대중의 의식을 그 한곳으로 수렴하려고 권력을 행사한다. 우선 지배계급은 사회체제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당대의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여 이런 사건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당대 사건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벅스버로우 경 부인이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42)이나 전쟁이 계속 끝나버린 과거의 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망각하려는 등의 리처드의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국사회는 빅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민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으로 전통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빅벤은 시각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가혹하기 이를데 없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모든 인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으로 국가의 존재를 꿈

임없이 확인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박희진, 307). 또한, 사람들은 권위의 실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단순한 권위의 상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Cialdini, 306). 이런 상징들은 웅장한 건축물이나 조형물,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미완성되어 있는 버킹엄 궁이 이미 사람들에게 한 권위의 상징이 되어 있는 모습이나, 헵크(Henke, 128)가 말하고 있듯이 자동차 사고 장면(23)에서 최고급 수준의 자동차만 보고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국 왕족이 타고 있다고 확신하며 관심을 받고 승배를 받는 장면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쟁 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영국의 모습은 스포츠, 연예프로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더불어 국가에 대한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지배계급을 유지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보다도 사회 유지가 절실했다. 이에 지배계급들은 국민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상(금욕주의)을 강요하여 개인의 감정을 숨기게 하였고, 영국 지배계급의 권위를 주입시킴으로써 일반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권위와 사상에 물들어 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 소외를 관료제에 의한 인간소외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조직이 강화되면 일종의 마력을 가지게 되어 개인은 그것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으로, 이것 역시 현대 인간소외의 한 현상이다(박승위, 30). 이러한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여러 인물들은 자신의 개성을 잃고 자신의 감정을 잊은 채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이 작품에 등장한다.

엘리자베스의 가정교사인 킬먼(Doris Kilman)은 가난에 찌들리고 직업을 박탈당하고 욕망을 억압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녀는 매력 없는 육체를 소유한 채 “육체의 욕망(the flesh)”(211-213)을 통제하지 못하고 항상 문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는 인물이다. 오로지 종교와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안식을 찾는 광신자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동성애에 가까운 집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클래리서의 모든 악덕이 그녀에게 이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클래리서의 내부의 사악함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의 이름 역시 kill+man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이면서도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을 펼칠 곳을 찾지 못하고 가정교사가 되며 미모를 타고나지 못해서 결혼 상대도 찾기 힘든 상황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는 이렇듯 사회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인물인 셸리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유능하며 출중한 여성으로, 자유분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탈선적이기까지 한 인물로 클래리서가 호감을 가지고 동성애의 감정을 가졌던 여성이다. 셸리는 많은 시를 쓰고, 그리고 모리스(Morris)와 셸리(Shelly)를 읽고, 사회 개혁의 방책을 토론하기도 하는 의식이 깨어있는 총기 넘치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난과 가부장 사회는 개성이 강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녀에게 그녀의 끼를 발휘할 공간을 잃게하고 사장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은 돈도 벌 수 없었고, 재산 소유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기였으므로 결국 켈리는 애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돈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다섯씩이나 낳고, 똥똥하게 살이 찐 채 현실에 안주하는 “광채가 완전히 가서버린”(296) 로제스터 부인(Mrs. Rosseter)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생기발랄한 켈리는 사회에 의해서 사장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도 나타난다. 피터는 지적인 욕구도 왕성하고, 정열적인 인물 이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며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피터는 클래리서와의 사랑이 깨어진 후 인도로 떠난 이후에 여러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어느 여성에게도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남성성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감각적이고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셉티머스를 태우고 지나가는 앰블런스 차를 보면서 혼자서 명상하는 피터의 모습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고독의 특권인 것이다. 혼자 있을 때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는 것도 자유이다. 이 민감성-울 때에 울지 못하고, 웃을 때 웃지 못한다는 것. 지금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영국인 사회에서 내가 파멸된 원인-그것은 감수성이란 것이다.

It is the privilege of loneliness; in privacy one may do as one chooses. One might weep if no one saw. It had been his undoing -this susceptibility- in Anglo-Indian society; not weeping at the right time, or laughing either. (242)

감수성이 예민한 그는 울 수 있는 자유조차 확보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 피터는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 슬프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인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의 감정이 억눌러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위의 인물들과 함께 사회적 억압 속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이며, 이 작품은 두 인물들을 중심으로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클래리서는 우아하고, 아직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결혼 생활을 30여년 정도 한 선 두살의 중년부인이다. 그녀의 남편은 하원의원인 리처드이며 그녀에게는 엘리자베스(Elizabeth Dalloway)라는 17살 난 아름다운 딸이 있다. 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은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교계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공허감을 느끼고 실존적 불안을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클래리서는 켈리를 통하여 자신

이 얼마나 속박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자유분방하고 생기가 넘치는 샬리와 키스하는 순간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할 만큼 자연스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꽃들이 심어진 돌 항아리 걸을 지나갈 때 클래리서에게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왔던 것이다. 이때 샬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는 클래리서에게 입맞추었다. 온 천지가 뒤집힌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서 사라졌다. 거기에는 클래리서와 샬리만 있는 것 같았다. 단단히 포장한 선물을 받아 가지고 뜯지는 말고 잘 간수하고만 있으라는 부탁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다이아몬드나, 포장된 한없이 귀중한 보물을 샬리와 둘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는 동안에 열어 보았다고나 할까, 아니 그 광채가 저절로 포장을 뚫고 나왔다고나 할까. 그때 클래리서는 계시를, 종교적인 황홀감을 느낀 것만 같았다!

Then came the most exquisite moment of her whole life passing a stone urn with flowers in it. Sally stopped : picked a flower : kissed her on the lips. The whole world might have turned upside down! The others disappeared : there she was alone with Sally. And she felt that she had been given a present, wrapped up, and told just to keep it, not to look at it - a diamond, something infinitely precious, wrapped up, which, as they walked (up and down, up and down), she uncovered, or the radiance burnt through, the revelation, the religious feeling!(87)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가부장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억압으로 억누르고 스스로 부정한다. 젠슨 (Jensen, 162)은 이 경험이 클래리서의 삶에 매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클래리서가 사회적 관습에 부딪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감정마저 부정했으며, 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파악한다. 사랑마저 접어야 했던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회적 억압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샬리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렸듯이, 피터에 대한 사랑도 접어버리고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 사랑하는 피터를 두고 리처드를 선택한 클래리서의 선택은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에이블(Abel, 34)은 말하고 있다. 즉, 클래리서는 그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거기다가 그녀만의 공간을 내어줄 그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제도 속에서 그래도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내에서도 그녀만의 공간을 내어줄 그런 보호막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남성인 리처드를 반려자로 선택한 것으로, 클래리서의 피보호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소위 그녀를 받쳐줄 사람이며 하나의 버팀목이다.

이렇듯 감정적으로는 샐리 또는 피터에게 끌리지만 이성적으로는 리처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클래리서는 결혼 이후에 델러웨이 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메이즐(Perry Meisel)은 그녀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는 클래리서와 델러웨이 부인이다. 각각의 명칭은 그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하고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집결체를 의미한다. 가령, 클래리서라는 호칭은 부어틴, 피터 월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적 매혹 등등에 관한 기억과 관계가 있는 반면, 델러웨이 부인이란 호칭은 리처드와의 결혼, 딸 엘리자베스, 그리고 파티 주체자로서의 그녀의 역할 등과 관련된다.

The two primary ones, of course, are "Clarissa" and "Mrs. Dalloway," with each proper name signifying a different cluster of the various and incompatible "parts" that constitute her "own" or "proper" self -under the rubric "Clarissa," for example, her memories of Bourton, her relationship with Peter Walsh, her sexual fascination with other women, and so on; under "Mrs. Dalloway" her marriage to Richard, her daughter Elizabeth, her role as hostess, and so on. (Meisel, 70)

또한, 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클래리서는 자신의 역할이라는 뜻에 걸린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결혼도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단지 본드 거리를 사람들과 놀랍고도 장엄하게 행진한다는 것,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것, 더 이상 클래리서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리처드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것만을 느꼈다.

She had the oddest sense of being herself invisible : unseen; unknown : there being no more marrying, no more having of children now, but only this astonishing and rather solemn progress with the rest of them, up Bond street, this being Mrs. Dalloway; not even Clarissa anymore; this being Mrs. Richard Dalloway. (52)

이는 여성 삶에 대한 회한과도 같은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한계는 자신이 벅스버로우 경 부인처럼 몸집이 크고 남자처럼 정치에도 관여하는, 뭔가 쓸모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중상층 여성의 수동적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난다. 즉 이미 자신 즉 클래리서라는 주체를 잃고서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편입되는 삶을 살고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거기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독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파티를 위한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클래리서 자신이 부어턴 부인의 점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입지가 축소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이곳에서의 삶의 핵심에 감도는 공허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핵심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79-81).

또 다른 인물인 셉티머스는 브래드쇼 박사에 의해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되어 심각한 환자로 취급되는 인물로, 런던으로 시인이 되려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오자 하나의 획일화 된 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가부장제 사회라는 현실이 주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있어 영국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당연히 참전해야만 되는 전쟁이 되며, 이런 전쟁과 군대생활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사회가 장려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변모한 인물이다. 그러나 에반스라는 장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당시에 그는 이러한 감정은 사회가 주장하는 금욕주의에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이미 무감각해진 즉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셉티머스는 곧 에반스에 대한 감정이 사회로부터 억압 받아온 하나의 결과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사회의 억압으로 억누를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고, 무기력증, 불감증,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어떤 식으로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그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었기에 권력의 대행자인 브래드쇼 박사와 홉즈 박사로부터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지어 진다. 즉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성공했으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는 죽음이 드리워진 것으로 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도 찾지 못하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강요와 억압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는 과연 브래드쇼 박사나 홉즈박사가 대변하는 사회가 “균형”(168)이라는 미명하에 그에게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고 그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반문하며, 결국은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창으로 뛰어내려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억압이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래리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셉티머스는 클래리서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의 셉티머스는 클래리서 자아를 형성하는 타인이면서 또한 클래리서 자신을 발견하는 타인이기도 하다. 클래리서는 여성적인 비전으로 삶과 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하고, 셉티머스는 남성적인 비전으로 죽음과 비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해주고 있다 (Bazin, 103). 그러나 이들이 정상과 광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Gorden, 67). 즉 울프가 셉티머스의 광기 속에도 클래리서의 정상을 심어두고, 클래리서의 정상 속에도 셉티머스의 광기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암시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셉티머스와 클래리서를 각자의 분신으로 설정하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묘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울프는 클래리서가 보기에 정상인인 셉티머스의 일면을 의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게 되고, 클래리서의 정상적인 면이 독자들이 보기엔 비정상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게 울프는 그 경계를 흐려 놓았다.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도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그들은 모두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셉티머스는 루크레치아(Lucrezia Warren Smith)가 보듯 아내의 고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이며, 클래리서 또한 리처드의 고독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둘째, 그 둘은 모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에게 피터가 있듯 그에게는 이사벨라(Isabella Pole)가 있었다. 현재 둘은 모두 리처드와 루크레치아라는 배우자가 있다. 셋째로, 그 둘은 동성애적 경험도 가지고 있다. 셉티머스는 에반스에게, 그리고 클래리서는 샬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삶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이 다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대조적인 인간관계와 사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셉티머스는 사물과는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무심한 인물로, 인간들과는 단절되어 독백적 상황에 갇혀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가장 가까운 루크레치아 역시도 거추장스런 장애물로 여기고, 홈즈 박사와 브래드쇼 박사와의 소통을 거부한다. 반면 이러한 모습은 피터에게 “속물적”(139)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래리서와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사자와의 관계이다. 그의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 에반스의 죽음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에반스라는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으로 느끼는 그의 죽음 충동은 그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러나 클래리서는 어머니, 동생, 숙부, 아버지 등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사자와의 영교를 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주변인으로 나타나는 셉티머스의 모습은 겉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이는 클래리서에 내재한 자아의 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절제되고 균형 감각을 지닌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가부장제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불안을 느끼고 옛 애인 피터의 계급일탈과 자유로운 인생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다. 셉티머스가 사회와 결혼, 출세에 대해 보이는 자기 파괴적 거부인 이런 극단적인 반발은 클래리서가 감히 외부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이다. 즉, 클래리서는 셉티머스처럼 극단적으로 사회 체제로부터 자신을 단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반면 셉티머스는 일상적인 삶과 사회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사회와 완전히 결별한 채 단절되어 살아간다.

이런 셉티머스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규정할 뿐이다. 그를 비정상인으

로 규정짓고 사회 속에 순응시키려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인 브래드쇼 박사나 홈즈박사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인물을 수용하지 못하고 셉티머스를 지배하고 조정하려 하며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들은 전쟁을 직접 유발하거나 높은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독재력을 뒷받침하는 사회악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치료라는 미명하에 셉티머스의 정신세계를 짓밟으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신병리학은 사회를 재조정하기 위해 셉티머스를 소외시키고, 사회통제의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 셉티머스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 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 자체는 그가 불안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소외된 고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살은 사회 반항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 즉, 이러한 불안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인데, 그를 죽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홈즈박사로, 그는 루크레치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셉티머스에게 강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를 창에서 뛰어내리게 만든다. 바로 이런 홈즈박사의 행동은 이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지니지 않는 것 자체도 바로 이 사회를 고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셉티머스의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의 억압 속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이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몸을 던지는 셉티머스의 자살은 외부세계와의 교통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자살은 그의 삶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맞서서 영혼의 독립을 이루었다 (Brower, 59). 그에게 있어서 이 순간에 자살이라는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자살은 셉티머스가 선택한 정신을 속박하는 독재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이었고, 그 사회 속에서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다. 이 죽음은 클래리서가 그녀의 정신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타협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청년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클래리서는 추락의 순간을 재생해내고 그녀 자신의 몸도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와 일체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셉티머스가 브래드쇼 박사의 지배 하에 굴복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그의 의지를 느끼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삶에 관해 깊은 성찰을 한다. 클래리서는 브래드쇼 박사가 환자의 영혼을 억압함으로써 인생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사실과 이 억압을 피해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해서 억압의 강도가 매우 강력하며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녀는 그 청년과 동류의식을 느끼며, 그가 선택한 죽음은 클래리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러워지고 흐려지고 거짓 잡담으로 가득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간직하려던 보물도 손상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셉티머스 자신의 보물을 지킨 것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정화시키고 또한 압도해 오는 삶에 대한 무력감, 고립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신비스럽게도 가라앉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늙어갈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잡담에 둘러싸이고, 평소의 생활 속에

더럽혀지고 흐려지고. 매일의 타락, 허위, 잡담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을, 그 청년은 지켰다. 죽음은 도전이었다. 죽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사람들은 중심이 그들을 묘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다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친밀감도 떨어지고, 기쁨도 식어간다. 인간은 고독했다. 오로지 죽음 속에 포용이 있었다.

They would grow old. A thing there was that mattered : a thing, wreathed about with chatter, defaced, obscured in her own life, lay drop every day in corruption, lies, chatter. This he had preserved. Death was defiance. Death was an attempt to communicate, people feeling the impossibility of reaching the centre which, mystically, evaded them : closeness drew apart: rapture faded: one was alone. There was an embrace in death. (287-288)

그녀는 이렇게 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클래리서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자 자신을 통합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셉티머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죽음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패배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만의 세계가 이 자연과도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세계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껴안는 커다란 포용일 수 있고 또한 죽음은 바로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 클래리서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함으로써 그녀는 천박하고 세속적인 인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생의 통찰을 얻게 되며,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셉티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클래리서가 일종의 정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회를 거부하고 싶은 그녀의 무의식적 충동을 반영한다. 그의 자살은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부여하고, 이로써 그녀는 죽음에 대한 열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은 자살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 청년이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시계가 친다. 한점, 두점, 세점, 네점.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었다.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저기! 이제 노 마님이 불을 켜다! 집안이 깜깜해졌다.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 아닌가, 하고 클래리서는 되풀이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생각났다. 이제는 뜨거운 햇빛을 두려워 말라! 이제 손님들에게로 돌아가 봐야 했다. 그러나 참 이상한 밤이 아닌가! 어쩐지 클래리서는 그가 몹시 좋아지는 것만 같았다- 자살한 청년 말이다. 청년이 저지른 행동, 생명을 내버린 것이 기뻐다 시계가 치고 있었다. 이 소리는 둔하게 원을 그리며 공중에 녹아들어 갔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즐겁게 해주었다.

The young man had killed himself : but she did not pity him : with the clock striking

the hour, one, two, three, she did not pity him, with all this going on. There! the old lady had put out her light! the whole house was dark now with this going on, she repeated, and the word came to her. Fear no more the heat of the sun. She must go back to them. But what an extraordinary night! She felt somehow very like him—the young man who had killed himself. She felt glad that he had done it : throw it away. The clock was striking. The leaden circles dissolved in the air. He made her feel the beauty; made her feel the fun. (290)

그녀는 셉티머스의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뻐하며, 이로 인하여 그녀의 마음도 정화되어 삶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된다. 물론 주인공인 클래리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대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완벽한 안주인이 되어서 사회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 억압 속에서 말살되는 개인의 개성을 지키고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죽음이 아니라 “나”로 분리되어 있는 고립된 인간을 “우리”로 연결시키는 일, 즉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그 형성을 위한 대화와 교감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클래리서가 다시 파티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던지시 암시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고,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소외를 극복해 주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며, 상대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행복하게 살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클래리서는 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의 주요한 요소가 대화이며,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과 대화이다 (권석만, 427). 『델러웨이 부인』에서 클래리서가 이성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남을 제공하고 대화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장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파티이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편인 파티는 개인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공간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자아만을 보이는 가면을 쓴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전체적인 통합이 아니라 중상류층만의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데에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Zwerdling, 151). 하지만 클래리서에게 있어서 이 파티라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 및 자신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클래리서가 파티에서 이루려는 통합은 인간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

는 상반되는 것이며 클래리서는 각각의 존재를 그 자체로 보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래리서가 파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파티를 하나의 극락조에 비유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파티는 또한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가까운 행위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파티를 주관하는 클래리서는 수녀(nun)로 묘사되고, 파티 자체는 “제사(offering)” (202)로 묘사되고 있다. 셉티머스의 자살이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가 되듯이, 파티는 클래리서에게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가 된다. 그러나 클래리서는 이 제사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는 모른다. 단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녀에게 파티는 그저 그녀가 좋아하는 하나의 삶인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삶이었다. “그러기에 내가 이려고 있는거야.”하고 그녀는 마침내 큰 소리로 삶을 향해 말했다.

“예, 예, 그런데 맥의 파티는..... 맥의 파티의 의미는 무엇이지요?”하고 묻는다면 파티라는 것은 하나의 제사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해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파티는 하나의 제사였다. 한 곳에 모으는 것, 무엇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인가?

아마 제사를 위한 제사인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것은 그녀의 선물이었다.

What she liked was simply life. “That’s what I do it for,” she said, speaking aloud to life. “Yes, yes, but your parties – what the sense of your parties?” all she could say was (and nobody could be expected to understand : They’re an offering : She felt if only they could be brought together : so she did it. And it was an offering : to combine, to create; but whom?

An offering for the sake of offering, perhaps. Anyhow, it was her gift. (202-203)

그녀는 파티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일종의 제사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파티를 통하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파티는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이타적인 행위인 것이며, 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여 다시 개인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절되어 있던 부어튼과의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미 죽을 줄로만 알았던 페리 여사(Miss Parry)가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샬리도 참석을 하는 듯, 과거의 존재들이 현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울프는 파티를 가장 경이로운 것이며 인간의 지고한 성취라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인간들을 함께 모아 개인간의 공간적 거리를 좁혀주고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줄 뿐 만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올프는 『델리웨이 부인』에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기 보다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체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삶을 풍요롭고도 깊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올프는 소중히 생각한다. 즉 “삶”이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혼자만의 고독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교감을 이루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클래리서도 사교나 일삼는 여느 상류층 부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녀는 일상적, 사회적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늘 내면의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며 살아간다. 허영심과 속물성이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일상에서 탈출하기를 갈망한다. 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인생을 체험하는 그녀는 인생의 절망감을 갖지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는다.

올프는 항상 격렬한 도시의 삶을 원했고, 적막함이나 고요함이 아니라 삶과의 투쟁을 원했다. 이렇듯 그녀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삶과의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 속에서의 삶을 원했던 것이다. 그 삶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녀는 삶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 그 삶에 과감히 맞서기를 원했던 것이다.

비록 그녀 자신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녀가 바라던 이러한 대화적인 인간관계의 망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더라면 그녀도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Ⅲ. 결론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 소외현상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있는 인간들 사이의 연결 즉 외로운 개인들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언어를 통한 대화는 물론이지만 그 대화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의 뒷받침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 역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행복도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대화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의 클래리서도 역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하나의 “존재(being)”를 이루어냄으로써 발전적인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 알 수 없고, 또 남을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말로써 진심을 다 표현할 수도 없음을 그녀는 인정한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언어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대

화를 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교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감은 공감을 통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감은 인간이라서 느낄 수 밖에 없는 외로움과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텔러웨이 부인』에서 말하는 사회적 억압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으로 이 균형 감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재에 내포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억압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클래리서는 사회의 관습을 거스를 만큼 용기가 있는 인물은 되지 못하기에, 자신의 동성애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부정하고 만다. 그리고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피터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립적인 정신 영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무언가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도 의구심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셉티머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면을 억압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을 강요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감정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억압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셉티머스는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결국엔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패배인 것만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꺼안는 커다란 포용이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 즉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지만, 그 죽음이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프가 원하던 삶의 방식은 죽음이 아니었다. 울프는 죽음보다는 삶 속에서의 투쟁을 원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인간관계, 즉 대화적 관계로서의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셉티머스의 죽음으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형성하고, 감정을 무디게 하거나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 즉 피터, 브래드쇼, 홈즈와 같은 인물들에 대하여 반감을 표하였다. 셉티머스 - 클래리서의 충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힘 즉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소멸된다. 즉, 인격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집권층이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가 그 강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개인의 다양성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그 개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는 것이다. 비록 클래리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택한 방법으로 사회적 억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울프는 이를 통하여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배계급이 인간의 존재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억누름으로써 죽음으로 이끌거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인간은 항상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형성이다. 이런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방법이 바로 파티인 것이다. 클래리서에게는 파티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 묻혀있던 추억과 무의식이 촉매제가 되어 클래리서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화의 필요성과 교감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클래리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작업을 파티를 통해서 수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파티 역시 이 시대엔 리처드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는 사회적 억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또한 그녀에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생활이었던 것이다. 이 파티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래리서가 파티라는 수단에 의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오늘날 사회적 소외와 갖가지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할 때 우리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Works Cited

-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9.
- 로버트 차알디니, 이현우 옮김, 『설득의 심리학』, 서울: 21세기 북스, 2004.
- 박승위,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 대구: 영남대학교, 1996.
- 박희진, 『버지니아 울프 연구』, 서울: 솔출판사, 1994.
- Abel, Elizabeth. "Narrative Structure(s) and Female Development : The Case of *Mrs. Dalloway*,"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Ed. Harold Bloom. New York :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 Bazin, Nancy Topping, *Virginia Woolf and the Androgynous Vision*, New Brunswick : Rutgers Univ. Press, 1973.
- Brower, Reuben, "Something Central Which Permeated : Virginia Woolf and 'Mrs. Dalloway'," *Virginia Woolf* Ed. Claire Spragu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1.
- Gorden, Lyndall, *Virginia Woolf : A Writer's Life*, Oxford : Oxford Univ. Press, 1984.
- Henke. Suzette A., "Mrs. Dalloway : The Communion of Saints",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Ed. Jane Marcus, Lincoln : Univ. of Nebraska Press. 1981.
- Jensen, Emily, "Clarissa Dalloway's Respectable Suicide", *Virginia Woolf : A Feminist Slant ed.* Jane Marcus, Lincoln : Univ. of Nebraska Press. 1983.
- Miesel, Perry, *Virginia Woolf and Walter Peter : Selfhood and the Common Life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rold Bloom. New York : Chelsea House Publisher. 1988.
- Woolf, Virginia. *Mrs. Dalloway*. Shinasa. 2002.
- Zwerdling, Alex, "Mrs. Dalloway and the Social System," *PMLA* 92, 1977.

